NEWS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1면 'KIA 홈경기'서 계속

공공 배달앱(땡겨요)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10월 기준으로만 봐도 누적 주문 건수는 4만6000여건으로, 30% 늘었다.

야구장 인근 점포의 매출도 덩달아 늘었다.

야구장 주변 외식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사 매출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지역 숙박업계 역시 타 지역 방문객이 늘면서 한국시리즈 종료까지 '만실'의 기쁨을 누렸고, 고속·시외버스 업계도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이처럼 광주시는 프로야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만큼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여행객들이 광주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스포츠 특화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을 3월부터 판매한다.

'야구광 트립'은 프로야구 경기관람 전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권역을 순회하는 투어프로그램으로 연중 추진될 예정이다.

또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협력해 KTX 승차권과 숙박비 할인이 결합된 특별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1면 '의대정원 철회'서 계속

단, 전국 의대가 복학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복귀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되돌림에 따라 '일부 의대생들이 돌아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이달 말까지 복귀 규모에 맞춰 교육 정상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지는 미지수다"며 "여러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절차를 논의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학 기간 연장, 학사 일정 변경 등은대학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2198ha 숲 조성 … 경제림·밀원수림 중점

꿀벌보호·300억대 경제적 효과 노린다

탄소흡수원 확충·미래가치 창출…"산림순환경영 실현"

전남도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해왔던 나무심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가치 창출에 집중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올해 240억원을 투입해 2198ha의 숲을 조성한다.

식재 후 30~40년 후 벌목을 통해 소득원이 될 경제림, 생활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큰나무 조림,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줄 밀원수림 식재 등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올해 식재 규모는 400만 그루에 달한다.

돈이 되는 경제림으로는 1416ha 규모에 편백, 백합, 상수리 등을 심는다. 경제림은 벌기령 30~40년 뒤 1ha당 2000여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녀, 단순 계산으로 올해 식재한 경제림은 30년 후가 되면 283억원이 넘는 목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꿀 채취에 용이한 헛개나무, 쉬나무 등 밀원수림을 담양과 고흥, 화순, 장흥에 80ha 조성해 양봉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추진한 밀원수림 확대로 꿀벌 개체수는 지난 2022년 29만7000군에서 2023년 30만8000군으로 늘어났고, 올해 추가 식재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지와 생활권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큰나무 조림은 201ha,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조림 285ha,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60ha,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농경지 방풍림 등 산림재해방지림 136ha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에 322ha의 산불피해복구조림도 추진 중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총 복구 면적의 52%인 170ha 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50년까지 5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지난해까지 1억 20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2034년까지 2억 그루 추가 나무 심기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전 광주에 소재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소'를 방문,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유가족 뜻 반영 특별법 신속 제정 노력"

12·29 여객기 참사 추모공간 마련·무안공항 활성화 등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치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광주사무실을 들러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재난 안전대책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로 방문에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종권 유가족협의회 업무지원 본부장, 박철 유가족협의회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사 이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남도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간 마련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등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반영돼 신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함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김은혜(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수진(야당 간사) 국회의원이 지난 2월 말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사고 발생 100일째인 오는 4월 7일까지 특별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 주거 용적률 완화 논의

오늘 오후 7시 KBS광주 '생방송 토론740' 공개토론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인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7시 KBS광주 '생방송 토론740'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에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 교수가, 시의회에서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과 박홍근 건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중심상업지역의 현 상황과 주거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영향, 조례안의 문제점 극복 및 개정 취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적 대안,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처리 및 향후 도시계획 등에 대해 광주시, 시의회, 전문가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KBS 1 TV에서 생방송한다. 방송시간은 평소보다 20분 빠른 오후 7시20분에 시작해 오후 8시30분까지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선관위, 4·2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 신고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재·보선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군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